

# 13세기 말 哈丹軍의 침공에 대한 高麗의 대응\*

金 鎮 洙\*\*

1. 머 리 말
2. 13세기 말 전쟁이전 원의 정치적 상황 변화와 고려의 대비
3. 합단군의 고려침공 경로에 대한 재검토와 고려군의 대응양상
4. 여원연합군의 공세와 합단군의 패퇴
5. 맺 음 말

## 1. 머 리 말

13세기 말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려는 元 황제 쿠빌라이(忽必烈, 世祖)와 기존의 分封體制를 고수하려는 東方弟諸王家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야기된 원 제국의 내란은 인접국인 고려에까지 파급되었다. 이로 인해 고려왕조는 30여년간의 대몽전쟁 이후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동방왕가의 일원이었던 카치운(哈赤溫)家 哈丹<sup>1)</sup>의 고려 침공이 그것으로 합단군은

\* 논문은 2010년 2월 고려대 한국사학과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 「高麗 忠烈王代 哈丹軍의 侵攻과 그 對應」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글임.

\*\* 육군3사관학교 전쟁사학과 강사

1) 哈丹은 동방왕가의 宗王으로 1287년 옷치긴(斡赤斤)家の 乃顔과 함께 원 제국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乃顔이 처형된 후 합단은 요동지역에서 원에 지속적인 항전을 벌이다가

1291년(충렬왕 17) 고려로 쳐들어왔다. 고려를 침공한 합단군은 동·서북계를 유린하였고, 마침내는 忠州를 거쳐 燕岐縣에까지 이르렀다가 麗元聯合軍에게 격퇴당했다. 결국 1292년(충렬왕 18) 압록강에서 원 토벌군에 의해 합단이 사망함으로써 전쟁은 종결되었다.

합단군의 침공은 13세기 고려가 원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질서 속에 편입된 이후, 원 내부의 격렬한 정쟁 과정에서 고려가 휘말린 사건이었다. 더욱이 충렬왕대 고려는 원에 의한 일본 원정에 2차례나 동원되는 등 타의에 의한 전쟁 체제가 지속되었던 상황이었으며, 이 전쟁도 고려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麗末鮮初 문인이었던 權近은 『陽村集』에서 고려왕조가 극심한 괴롭힘을 받은 전쟁으로 哈丹과 紅巾賊을 언급하였는데,<sup>2)</sup> 이것은 당시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고려후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합단군의 침공은 그동안 연구자들에 의해 관심있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90년대 이전까지 합단군의 침공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몽항쟁사 연구에 가려 『高麗史』·『高麗史節要』 등 사료상에 수록된 전쟁의 경과만을 간략히 정리한 수준에 그쳤다.<sup>3)</sup> 이러한 이유는 합단군의 침공당시 고려가 원의 간섭으로 인한 군사력 약화로 元軍의 지원에 의존하였으며, 이들이 와서야 겨우 수습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sup>4)</sup>

---

요동의 托吾兒河·開元 등에서 연이어 격파당하고 고려로 쫓겨 들어오게 되었다. 합단은 『元史』에서 '哈丹'·'合丹' 등으로 표기하며, 『高麗史』에서는 '哈丹'으로 표기하는 것 외에 '東賊' 또는 '丹賊'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高麗史』의 '哈丹' 표기를 따르도록 하며, 아울러 개인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哈丹으로, 그 외에는 哈丹軍이라고 표기하도록 하겠다.

2) 『陽村集』 卷13 克敵樓記, “子惟王氏有高麗五百年間 被寇之劇 無若忠烈庚寅之哈丹 恭愍辛丑之紅賊”

3) 朝鮮歷史硏究會, 『哈丹의 入寇』, 『朝鮮民族史』, 三義社, 1948.

金庠基, 『高麗時代史』, 『韓國全史』 2, 東國文化社, 1961;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간행된 고려 전쟁사 관련 연구서에서도 哈丹의 침공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최근 육군본부에서 간행된 고려·몽골 전쟁사에 대한 연구서는 전쟁 경과에 대해 잠깐 언급하였다(육군본부, 『고려·몽골전쟁사』, 육군군사연구소, 2007).

1990년대에 들어서 지방사의 입장에서 합단군과의 항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原州·燕岐 등 합단과 주요 전투가 벌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전투 양상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원충감 등 당시 지휘부와 관련된 개별 인물에 대한 연구도 나왔다.<sup>5)</sup> 한편 몽골사의 입장에서 합단의 반란을 원 제국 내부의 분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바라보면서, 고려가 원의 내전 정리에 도움을 제공한 셈이라는 견해도 있다.<sup>6)</sup> 여기에 더해 합단군의 침공이 고려와 원 양국의 관계 형성 및 안정에 기여했다는 흥미로운 해석도 제기되었다.<sup>7)</sup>

지금까지 합단군의 고려 침공 배경 및 戰況의 이해는 기존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 하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보이므로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논문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연구에서는 사료를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高麗史』·『高麗史節要』 등 기본사료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그러다보니 누차 언급된 原州·燕岐縣 등 한반도 내륙의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高麗史』 등 正史類 외에 『益齋亂稿』와 같은 文集과 외국 사료인 『元史』에는 보다 새로운 내용이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합단군과의 전투는 동북 방면만이 아니라 이미

5) 윤용혁, 「元 哈丹賊의 高麗침입과 燕岐大捷」, 『燕岐大捷研究』, 公州大博物館·忠南燕岐郡, 1994.

이해준, 「연기대첩지 현장에 대한 조사연구」, 『燕岐大捷研究』, 公州大博物館·忠南燕岐郡, 1994.

이남석 외, 「연기대첩지 지표조사」, 『燕岐大捷研究』, 公州大博物館·忠南燕岐郡, 1994.

신호철, 「哈丹賊의 侵入과 元沖甲의 鶴原城(雉岳城) 勝捷」, 『原州 鶴原山城·海美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原州市·忠北大, 1961.

이인재, 「1291년 합단(哈丹)의 치악성 침입과 원충감의 항전」, 『韓國思想과 文化』 7, 한국사상문화학회, 2000.

\_\_\_\_\_, 「원충감(1250~1321)의 生涯와 活動」, 『梅芝論叢』 20, 延世大學校梅芝學術研究所, 2003.

6) 畢奧南, 「乃顏-哈丹事件與元·麗關係」, 『內蒙古社會科學』, 內蒙古社會科學院, 1997.

7) 주채혁, 「쿠빌라이칸의 중앙집권화에 대한 카단宗王軍의 항전과 고려 鶴原山城 討伐戰」, 『江原人文論叢』 8, 2000.

額爾敦巴特爾, 「쿠빌라이칸과 원·고려 지배세력의 성립」, 『팍스몽골리카와 고려』, 혜안, 2009.

압록강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 西京을 지나는 서북 방면에서도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료는 합단의 침공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나아가 이 시기 高麗軍의 대응양상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둘째는 첫 번째 한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지방항쟁사·지역사 중심에서 합단군의 침공이 다루어진 결과, 전쟁의 주요한 주체인 고려 조정과 관군의 대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지방에서 벌어진 전투가 조정이나 관군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조정과 중앙군의 대응양상의 실체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서북 방면에서 고려군의 전투 동향을 살펴보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였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합단군의 고려 침공경로를 재복원하면서 지방 항쟁의 시각에서 주목하였던 전쟁 양상과 그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전쟁의 배경이었던 13세기 말 원의 정치적 상황과 고려의 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합단군의 동·서북 방면 침공 경로를 재복원하여 고려군의 대응 양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4장에서는 여원연합군의 공세와 합단군의 패퇴과정을 살펴보고 전쟁의 승리요인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간과되어 왔었던 고려-합단군 전쟁이 고려시대 전쟁사에서 주요한 전쟁이었음을 이해하는데 부족하나마 의의가 있을 것이다.

## 2. 13세기 말 전쟁이전 원의 정치적 상황 변화와 고려의 대비

13세기 칭기즈칸에 의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등장하였던 몽골제국은 4대 憲宗 蒙哥의 사후(1259년)에 제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政爭이 전개되었다.

1260년(원종 1) 스스로가 주최한 쿠빌타이를 통해 황제에 오른 쿠빌타이는 이러한 內戰을 수습하였고, 국호를 '元'으로 개칭하면서 원 제국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쿠빌타이에 반대하는 일부 宗王들이 봉기하면서, 원은 또다시 내전에 휩싸였다. 대표적인 세력이 중앙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우구데이(窩闊台)家 海都를 중심으로 한 西方王家와 동북만주를 기반으로 한 옷치긴(斡赤斤)家 乃顏을 중심으로 한 東方王家 등으로, 이들은 각각 1269년과 1287년에 원 제국 타도를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한편 인접국인 고려는 약 30여 년 간의 대몽전쟁을 종식하고 원과 왕실 혼인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sup>8)</sup> 이후 고려는 원 중심의 질서 안에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과거 무신정권이래 약화되어 갔었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었다. 당시 고려의 군사력 강화 시도는 충렬왕이 원 황제의 부마라는 위상이라는 정치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1280년(충렬왕 6) 제2차 일본원정 준비와 관련하여 국왕은 원 세조에게 일곱 가지의 요청사항<sup>9)</sup>을 전달하여 이를 승인받았는데, 여기에는 독자적인 호구조사권, 고려국왕의 만호 임면권 및 자체적인 군지휘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

8) 지금까지 高麗와 元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있어, 일일이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충렬왕대 대외관계와 관련한 대표적인 논문만 언급해 둔다.

金惠苑, 『忠烈王 入元行績의 性格』,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1986.

주채혁,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 몽골-고려사의 성격문제』, 『國史館論叢』 8, 1989.

정용숙, 『元公主 출신 왕비의 등장과 정치세력의 변화』, 『고려시대의 后妃』, 민음사, 1992.

金惠苑, 『麗元王室婚姻의 成立과 特徵』, 『梨大史苑』 24·25합, 1994.

張東翼, 『高麗後期外交史研究』, 일조각, 1994.

李益柱,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大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6.

李命美, 『高麗·元 王室通婚의 政治的 의미』, 『韓國史論』 49, 2003.

金浩東, 『몽골제국과 고려-쿠빌라이 정권의 탄생과 고려의 정치적 위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9) 『高麗史』卷29 世家28 忠烈王 6年 8月 辛卯. “一以我軍鎮戍耽羅者 補東征之師 二減麗漢軍 使闍里帖木兒 益發蒙軍以進 三勿加洪茶丘職任 待其成功賞之 且令闍里帖木兒與臣管征東省事 四小國軍官皆賜牌面 五漢地濱海之人并充梢工水手 六遣按察使 廉問百姓疾苦 七臣躬至合浦 閱送軍馬 … 帝曰 已領所奏”

었다. 이를 통해 고려군은 군사력 확보 및 작전수행에 있어 元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물론 元의 입장에서 일본정벌을 위한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상황 하에 고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sup>10)</sup>

또한 고려는 군사징발체계에 대한 정비도 시도하였는데 그것은 1차 일본 원정 이후 고려 조정이 計點使의 파견을 통해 戶口 파악을 시행하면서<sup>11)</sup> 군사를 확충하는 것이었다. 그 성과는 제2차 일본원정에 징발된 고려의 총군사 규모를 원 中書省에 보고했던 내용에서 나타나는데,<sup>12)</sup> 이는 국가가 직접 각 도의 인구를 파악하여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고려는 원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한편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내 안정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런데 1287년(충렬왕 13) 봄에 韓赤斤 家 乃顔을 수장으로 한 동방왕가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라무렌(西拉木倫) 유역으로 진군하여 원 제국을 압박해 들어갔다. 동방왕가의 반란은 예전부터 서방왕가와 대립하고 있었던 원 제국에게 있어 최대의 위기상황이었다.<sup>13)</sup> 이러한 여파는 인접국인 고려에도 파급될 우려를 가져왔다. 과거 동방왕가는 고려에 함부로 월권을 일삼아 왔었다. 동방왕가의 일원이었던 諸

10) 충렬왕대 고려의 군사력 강화과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진수, 「高麗 忠烈王代 哈丹軍의 侵攻과 그 對應」,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5~13쪽.

11) 『高麗史』卷79 志33 食貨2 戶口 忠烈王 5年 8月. “分遣計點使於諸道 初都評議使司言 太祖奠五道州郡 經野賦民 皆有恒制 近來兵饑相 仍倉儲懸罄 橫斂重於常貢 逋戶 累其遺黎 是宜計戶口 更賦稅 以革姑息之弊 由是累發計點使 而未見成效 及東征之役 發民爲兵 故復有是命”

12) 『高麗史』卷29 世家29 忠烈王 6年 10月 己酉. “小國已備兵船九百艘 梢工水手一萬五千名 正軍一萬 … 見今所抄 小邦軍額京內二千五百慶尙道二千三百九十全羅道一千八百八十忠清道一千九百西海道一百九十交州道一百六十東界四百八十 總計一萬人”

13) 당시 원 제국과 동방왕가와의 대립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윤은숙, 「쿠빌라이칸의 중앙집권화에 대한 東道諸王들의 대응 - “乃顔 반란”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8, 2003.

\_\_\_\_\_, 「웃치긴가 타가차르의 활동과 쿠빌라이의 카안위 쟁탈전」, 『몽골학』 22, 2007.

王 忽刺出가 고려 界內에 도망간 백성을 拘括한 사건<sup>14)</sup>이나 고려의 반역세력이 韓赤斤家の 塔察兒에게 투탁한 것<sup>15)</sup>, 乃顔이 도망한 군사들을 推勘하기 위해 사람을 고려에 보낸 사건<sup>16)</sup>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고려의 세력권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었다.<sup>17)</sup>

여하튼 그 해 5월 충렬왕은 스스로 元에 助軍을 청하였으며,<sup>18)</sup> 7월에는 국왕이 친히 출정군을 인솔하여 이동하였다.<sup>19)</sup> 그러나 원군은 쿠빌라이의 親征 하에 반란군을 크게 격파하였고, 반란군의 주장인 내안을 사로잡아 처형시켰다. 결국 동방왕가의 반란은 일단락되었으며, 황제의 명으로 고려군의 출정 또한 중지되었다.

1287년 10월 내안에 이어 宗王 哈丹이 다시 봉기하였는데, 송화강 유역에서 흑룡강 유역에 걸쳐 원 제국에 항전하였다.<sup>20)</sup> 哈丹은 칭기즈칸의 동생이었던 哈赤溫의 4대손으로 동방왕가의 일원이었으며, 韓赤斤家の 내안 다음으로 많은 分封地를 소유하고 있었다. 과거 칭기즈칸 시기 합단을 비롯한 동방왕가는 동북만주지역을 포함하는 광활한 지역을 자신들의 통치지역으로 삼으면서 초원지대와 목·농의 혼합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였다.<sup>21)</sup> 또한 이들은 제위계승분쟁에서 쿠빌라이를 적극 지지하여 한때 원 제국에서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았으며, 그 세력을 팽창시켰다.<sup>22)</sup> 그 결

14) 『元史』卷7 本紀7 世祖 至元 9年 12月 辛丑. “諸王忽刺出 拘括逃民高麗界中 高麗達魯花赤上其事 詔高麗之民猶未安集 禁罷之”

15)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4年 7月 壬辰. “西海道內 谷州遂安兩城 往年投拜塔察兒大王 大王使吉里歹來點民戶 尋蒙省旨云 諸王投下不得一面收拾民戶 況高麗附屬國土不合收拾”

16)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3年 5月 壬寅. “時乃顔使本國叛人庾超來 推勘逃軍 超聞乃顔叛逃至金郊 遣人捕斬之”

17) 李命美, 앞의 글, 2003, 28쪽.

18)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3年 5月 壬寅. “王聞乃顔大王叛 遣將軍柳庇如元 請舉兵助討”

19)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3年 7月 庚寅. “王親統前軍 以印侯爲中軍萬戶 出次開城卵山”

20) 합단군의 군사행동은 크게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1287년(충렬왕 13) 10월부터 1290년(충렬왕 16) 12월까지 만주 일대에서 전개되었고, 2단계는 1290년 정월부터 6월까지 고려에서 전개되었다.

21) 윤은숙, 『『몽골비사』와 『집사』에 나타난 몽골제국 초기 분봉(分封)의 특징』, 『江原史學』 22·23합, 2008, 250~251쪽.

22) 윤은숙, 『蒙·元 帝國期 窩忒乞斤家の 東北滿洲 支配-中央政府와의 關係 推移를 중심으로-』, 강원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173쪽.

과 동방왕가는 막강한 군사·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군사력은 몽골 고원을 포함한 서북부 만주의 騎馬射術에 능숙한 기병과 동북부 만주의 삼림전투에 익숙한 인력으로 두루 편성되어 있었다.<sup>23)</sup> 이러한 전력을 갖추었던 합단군은 원에 장기간 항전하였으며, 서방왕가의 海都軍도 수차례의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로 인해 원 제국의 정세는 여전히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려에도 역시 그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1288년 3월 고려군은 동북면에 대한 방비를 실시하였고,<sup>24)</sup> 이듬해 7월 海都軍을 정벌하기 위한 원의 요구에 따라 출병하기도 하였다.<sup>25)</sup>

1290년(충렬왕 16) 정월 합단군의 반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 조정은 “哈丹賊이 장차 동쪽 변방에 침범하려 한다.”라는 장군 오인영의 보고를 받고,<sup>26)</sup> 이에 대한 대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는 고려가 합단군과의 전쟁이 임박하였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A-1 (1290년 정월) 東賊(哈丹賊)이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諸君과 宰樞들이 회의하여 忽只·鷹坊·巡馬를 모두 하나로 통합하였다.<sup>27)</sup>

A-2 (1290년 정월 을축·무진) 을축에 僉議贊成事 洪子藩과 判密直事 鄭可臣 등이 병부에서 調兵하였고, 安戩을 경상도도지휘사로 金之淑을 전라도도지휘사로 삼았다. 무진에 僉議參理 宋玠을 충청도도지휘사로 임명하였다.<sup>28)</sup>

A-3 戶長 權直成이 哈丹을 친 功으로 大相을 받았다.<sup>29)</sup>

23) 주채혁, 앞의 글, 2000, 276쪽.

24)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4年 4月 丁卯. “以判三司事朴之亮爲東北面兵馬使 大將軍 金德之知兵馬使”

25)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5年 7月 癸卯. “帝以海都兵犯邊 將欲親征 遣阿且不花來徵兵”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5年 8月 壬戌. “遣萬戶金忻 率助征軍 赴遼陽行省”

26)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正月 甲子. “將軍吳仁永等還自元言 乃顏餘黨哈丹賊 將侵我東鄙”

27) 『高麗史』卷81 志35 兵1 兵制 忠烈王 16年 正月. “聞東賊來 諸君宰樞會議 忽只鷹坊巡馬 皆合爲一”

28)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正月 乙丑 : 戊辰. “乙丑 僉議贊成事洪子藩判密直事 鄭可臣等調兵于兵部 以安戩爲慶尙道都指揮使 金之淑爲全羅道都指揮使 戊辰 以僉議參理宋玠爲忠清道都指揮使”

29) 『成化安東權氏世譜』地上2. “權直成戶長擊哈丹功 授大相”



A-4 (1290년 2월 을해) 중군만호 鄭守琪를 禁忌山洞에, 좌군만호 朴之亮을 伊川에, 韓希愈를 雙城에, 우군만호 金忻을 參巖에 羅裕를 通川에 각각 주둔시킴으로써 丹賊(哈丹)에 대비하게 하였다.<sup>30)</sup>

A-1은 합단군의 침입 소식이 들려오면서 諸君과 宰樞 등이 忽只(忽赤)·鷹坊·巡馬 등 숙위군과 그에 준하는 기구의 인원들을 하나로 통합시켰다는 것으로, 開京의 방비를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짐작된다.<sup>31)</sup> 이전 해 충렬왕이 원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대신들이 임의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국왕이 장군 오인영을 통해 명을 내렸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A-2는 병부에서 調兵을 실시하고 三南 지방에 安戩·金之淑·宋玠 등을 都指揮使<sup>32)</sup>로 임명하였다는 내용이다. 당시 도지휘사 임명은 합단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각 도에 대한 군량과 군사징발 등 지방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전쟁 징후가 전해진 지 1~4일 후에 중앙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3은 『成化安東權氏世譜』의 기록으로 안동의 權直成이라는 戶長이 합단군과 싸운 공으로 大相의 관직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합단군의 침공이 주로 동·서북 방면과 연기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상도 안동의 戶長을 비롯한 군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 군사들도 조정의 소집에 응하여 출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A-2·3을 살펴볼 때 지방군사업무를 담당하였던 도지휘사의 지휘에 의해 해당 지방 군사들이 징발되어 출정하였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A-4는 2월 고려군이 합단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동북 방면 일대, 특히 鐵

30)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2月 乙亥. “遣中軍萬戶鄭守琪屯禁忌山洞 左軍萬戶朴之亮屯伊川 韓希愈屯雙城 右軍萬戶金忻屯參巖 羅裕屯通川 以備丹賊”

31) 尹薰杓, 『高麗末期 軍制改革論 대두의 사회적 배경』, 『麗末鮮初 軍制改革研究』, 혜안, 2000, 40쪽.

32) 都指揮使는 고종·원종 연간에 여러 차례 지방에서 군사를 지휘하여 국방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된 바 있으며, 충렬왕 때에는 하나 또는 몇 개의 道를 단위로 여러 종류의 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임으로써, 특히 도지휘사가 자주 파견되고 있었다(오종록, 『高麗末의 都巡問使』, 『震檀學報』 62, 1986, 5쪽).

嶺을 중심으로 배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철령은 동계에서 교주도로 넘어오는 유일한 큰 고개로서 그 형세가 매우 험하고 구불구불하여 방어하기 매우 유리한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곳이 뚫릴 경우 개경과 남경으로 이를 수 있다.<sup>33)</sup> 따라서 고려군이 이곳에 대한 방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삼별초 진압과 2차례 일본원정 등 전투경험이 풍부한 나유, 한희유, 김흔 등의 장수들이 투입되었다는 점, 중앙차원에서 군량 보급책을 강구하였던 사실 등<sup>34)</sup>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후에도 고려는 지속적인 대비책을 실시하였는데 5품 이하의 문관으로부터 內侍·茶房 등 왕의 측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군하도록 하였고,<sup>35)</sup> 대장군 한신의 서경군을 동계로 보내면서<sup>36)</sup> 동북 방면의 방비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서북 지역의 방비를 위해<sup>37)</sup> 副知密直司事 정인경을 서북면도지휘사로 임명하여 서경을 수비하도록 하였으며,<sup>38)</sup> 다른 州郡들에 대해서는 山城 및 海島에 입보도록 명하였다.<sup>39)</sup>

대외적으로 고려는 원과의 연합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고려는 원에 대한 원군 요청<sup>40)</sup>과 합단군의 침입 상황을 알려주었고,<sup>41)</sup> 세자(忠宣

33) 노영구, 「조선후기 함경남도 幹線 방어체계」, 『韓國文化』 36, 2006, 403~407쪽.

34)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 16年 2月. “哈丹犯邊 令諸王宰樞承旨班主各出米七石 坊里庶人出米有差 以充東界防戍軍糧”

35) 『高麗史』 卷81 志35 兵1 兵制 忠烈王 16年 5月. “點兵自五品以下文官及內侍茶房三官五軍禁學兩館 皆令從軍”

36)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6月 甲戌. “命大將軍韓愼 將西京兵禦哈丹于東界”

37) 그해 3월에 원이 동녕부를 폐지하고 서북면의 제성들을 고려에 반환하였다(『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3月 丁卯). 과거 1270년(원종 12) 2월에 원이 西京에 동녕부를 설치하면서 서북면 일대를 직할령으로 삼았는데, 고려는 이곳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다. 당시 원이 동녕부를 반환한 이유는 합단군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 일대에 대한 방어의 책임을 고려로 하여금 담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북 방면에 방비를 집중하고 있었던 충렬왕으로서는 서북면에 대한 방비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38)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7月 庚申. “以副知密直司事鄭仁卿爲西北面都指揮使留守西京”

39)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10月 戊戌. “令州郡入保山城海島”

40)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8月 庚寅. “遣大將軍柳庇如元 乞師 且奏避賊江華”

41)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5月 戊午. “遣將軍金延壽如元 奏哈丹入寇”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11月 丁未. “遣大將軍柳庇如元 奏哈丹入雙城”

王)의 입조를 통한 양국 군사적 연락체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sup>42)</sup>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고려 조정의 합단군에 대한 방비책은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원과의 관계 수립 이후 군사력 강화와 국내 안정을 도모하고 있었던 고려는 합단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침공 징후 소식이 전해진 지 1개월 내에 조정은 도지휘사 파견을 통한 각 도의 군사징발과 합단군의 침입이 예상되는 철령 일대에 출정군을 배치하였다. 이후 고려는 꾸준히 군사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한편으로 원과의 군사 연합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취하였다.

### 3. 합단군의 고려침공 경로에 대한 재검토와 고려군의 대응양상

#### (1) 서북 방면의 전황과 고려군의 반격

합단군의 고려 침공은 1291년(충렬왕 17) 정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장기간 원에 항전하였던 합단군은 1290년 9월에 요동의 瓦法에서 平章政事 閻梨帖木兒의 元軍에게 크게 패배하였다.<sup>43)</sup> 결국 요동에서 그 세력이 위축된 합단군은 11월경에 동북면의 雙城 부근에 이르렀으며, 이후 和州와 登州를 함락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사람을 죽여 양식으로 하였으며 부녀자들을 윤간한 다음 포(脯)를 떼어 정도로 잔혹한 살상

42) 1290년 11월경 세자는 세조의 명으로 원에 입조하였는데(『高麗墓誌銘集成』, 閔漬墓誌銘. “歲庚寅 天子詔 王世子入朝”), 이는 합단이라는 공동의 적을 대처하기 위해서 양국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林亨洙, 『高麗後期 禿魯花의 性格變化 研究』, 高麗大韓國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8, 19쪽).

43) 『元史』卷16 本紀16 世祖 至元 27年 9月 乙巳. “平章政事閻梨帖木兒帥師 與合丹戰於瓦法 大破之”

과 약탈행위를 일삼았다.<sup>44)</sup> 이렇게 합단군의 고려 침공이 임박해지면서 고려 조정은 만호 인후를 동계로 보냈으며,<sup>45)</sup> 충렬왕은 江華(江都)로 들어가 禪源社에 처소를 마련하였다.<sup>46)</sup>

한편 元軍은 합단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려군과는 별도의 군사 행동에 들어갔다. 諸王 乃蠻帶·遼陽行省平章政事 薛闊干·右丞 洪察忽(洪茶丘) 등이 합단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雙城과 婆娑府<sup>47)</sup> 諸城을 수비하고 있었는데,<sup>48)</sup> 이들 중 평장정사 薛闊干이 1만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로 출발하였다.<sup>49)</sup>

드디어 1291년 정월 합단군이 고려를 침공하면서, 고려는 본격적인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

B 乃顏의 잔적 哈丹이 散卒을 수합하였다. 그 무리를 10만이라 호칭하면서 水達達·女眞 일대를 협박하고 우리의 경계로 난입하면서 군대를 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鐵嶺으로부터 들어오고, 하나는 竹田으로부터 들어와서 곧장 王京으로 달려들자 왕이 萬戶 印候(印侯)·韓希愈·羅裕에게 명하여 방어하게 하였다.<sup>50)</sup>

B 사료는 고려 후기 문신이었던 李齊賢의 『益齋亂稿』에 수록된 내용으로 합단군이 고려 본토를 침공하면서 한 부대는 동북면과 교주도 경계인 鐵嶺

44)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12月. “哈丹兵數萬 陷和登二州 殺人爲糧 得婦女聚麀而脯之”

45)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12月. “遣萬戶印侯禦之”

46)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12月 丁亥. “王避兵于江華 御禪源社”

47) 『元史』地理志 東寧路를 보면 지원 8년에 동녕부가 설치되면서 13년에는 원래 고려영토였던 靜州, 義州, 麟州, 威遠鎮을 떼어서 파사부에 속하게 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元史』卷59 志11 地理2 遼陽等處行中書省 東寧 (至元)十三年 升東寧路總管府 設錄事司 割靜州 義州 麟州 威遠鎮隸婆娑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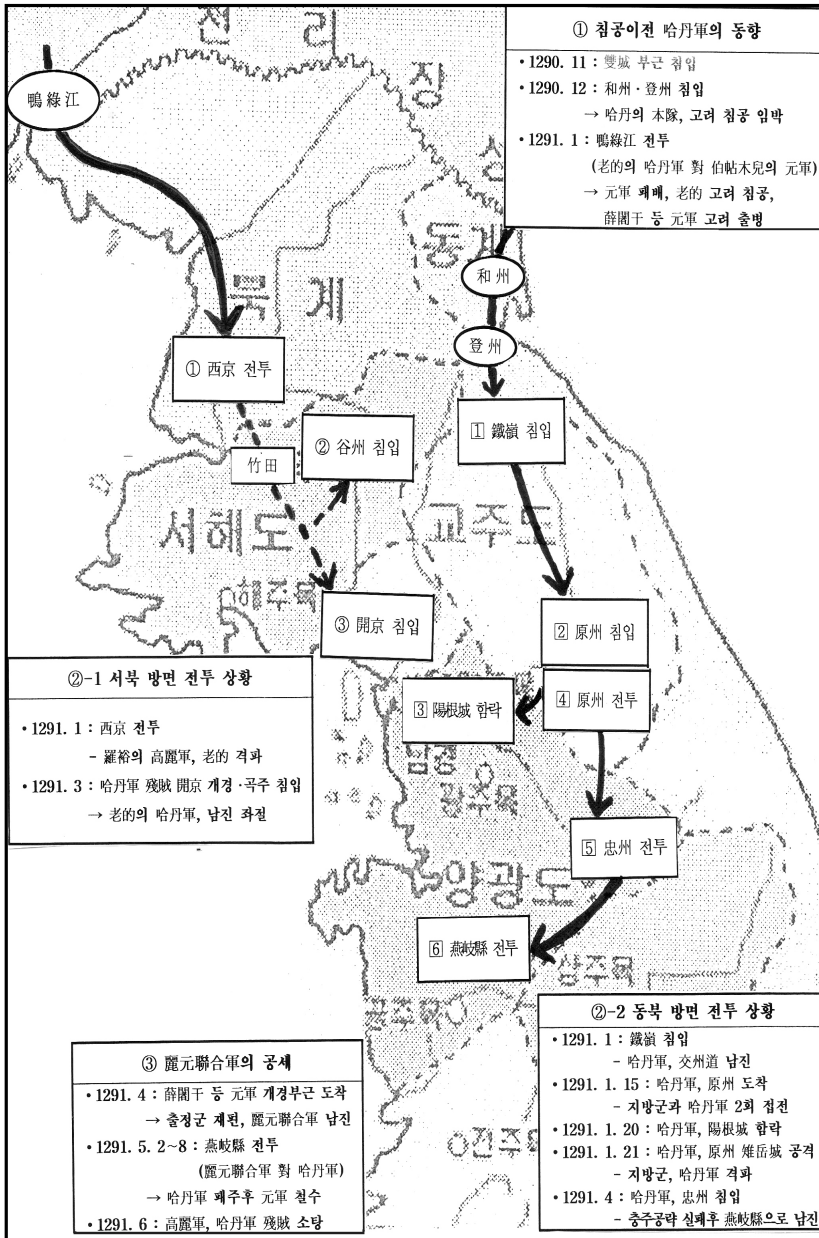
48) 『元史』卷16 本紀16 世祖 至元 27年 12月 乙未. “詔諸王乃蠻帶遼陽行省平章政事薛闊干右丞洪察忽 摘蒙古軍萬人 分戍雙城 及婆娑府諸城以防合丹兵”

49)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12月 癸卯. “元平章事薛闊干闌梨帖木兒右丞塔出等 率步騎一萬三千人來”

50) 『益齋亂稿』卷9上 有元贈敦信明義保節貞亮濟美翊順功臣 太師開府儀同三司尚書右丞相上柱國忠憲王世家. “乃顏之黨哈丹收散卒 衆號十萬 脅掠水達達女眞之地 闌入我疆 分軍爲二 一自鐵嶺 一自竹田 直趨王京 王命 萬戶印候韓希愈羅裕禦之”

으로, 한 부대는 竹田으로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竹田의 위치는 『高麗史』地理志에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데,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죽전이라는 지명이 함경도(동계) 永興都護府의 竹田嶺, 평안도(북계) 江界都護府의 竹田岬, 황해도(서해도) 瑞興都護府의 竹田 등으로 나타난다. 이중 평안도 강계는 당시 고려의 영역이 아니었고, 함경도 永興은 원의 영역이자 철령과 같은 동북 방면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평안도와 함경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죽전은 서해도의 서흥 부근으로 추정되는데 『東國兵鑑』과 安鼎福의 『東史綱目』에서 죽전이 각각 瑞興의 서쪽과 동쪽 30리에 위치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sup>51)</sup> 1361년(공민왕 10) 정월 서북면으로의 紅巾賊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고려군이 서해도의 철령과 죽전에 주둔하였다는 기록<sup>52)</sup>도 죽전이 서해도의 지명임을 방증해준다. 또한 조선 조정이 서북면에 대한 방비책을 논의한 과정에서 합단군의 침공을 전례로 들었던 것<sup>53)</sup>도 죽전이 서해도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자료이다. 이는 합단군의 침공 경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기존 연구에서는 합단군의 침공 경로를 동북 방면의 鐵嶺-交州-原州-忠州 등으로 보았다.<sup>54)</sup> 그러나 B 사료를 통해 합단군은 동북 방면뿐만 아니라 서북 방면 등 2개 경로로 분할하여 침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쟁구역은 종전의 이해보다 훨씬 확대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의 <지도>는 합단군의 침공 경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합단군의 침공로와 戰況을 정리한 것이다.

- 51) 『東國兵鑑』卷下 高麗破哈丹. “在今瑞興府西”; 『東史綱目』卷12下. “在今瑞興東三十里”  
 52) 『高麗史』卷39 世家39 恭愍王 10年 11月 庚申. “遣前密直提學鄭思道金珪守岬嶺柵 平章事李公遂屯竹田”  
 53) 『成宗實錄』卷53 6年 3月 甲寅. “高麗之時 哈丹契丹蒙古紅寇屢侵我西北鄙 爲耗孔熾 或直至開京”  
 『成宗實錄』卷53 6年 7月 乙丑. “高麗之季 哈丹等兵縱橫剽掠 如入無人之境者 以防戍未固也 今平安黃海兩道軍額甚少 防禦諸事 不可不慮也”  
 54) 윤용혁, 앞의 글, 1994, 78쪽.  
 신호철, 앞의 글, 1998, 93~95쪽.  
 이인재, 앞의 글, 2000, 123~127쪽.  
 주채혁, 앞의 글, 2000, 270~271쪽.



〈지도〉 합단군의 침공로와 戰況

다음의 사료는 서북 방면의 전투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 역시 사료 B의 내용을 뒷받침해준다.

- C-1 (1291년 정월) (至元) 27년 哈丹이 고려에 다시 들어갔다. 伯帖木兒는 명을 받아서 闊梨帖木兒와 함께 哈丹을 토벌하러 갔다. 28년 정월 鴨綠江에 도착하여 哈丹의 아들 老的과 싸웠는데 승리하지 못했다. 伯帖木兒는 이를 아뢰었으며 황제는 乃麻歹(乃蠻帶)와 薛徹干(薛閣干)에게 정벌할 것을 명하였고, 거듭 명하여 伯帖木兒를 선봉으로 삼았다.<sup>55)</sup>
- C-2 (1291년 정월 계해) 세자가 황제를 배알하고 哈丹을 토벌해 줄 것을 청하였더니 황제가 乃蠻帶대왕에게 병사 1만을 거느리고 토벌할 것을 명하였다.<sup>56)</sup>
- C-3 叛王 哈丹 등이 高麗로 도망쳐 들어갔고, 그 나라의 西京을 침범하면서 遼陽에서 2천리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모두 소란을 일으켰다. 中書省이 특별히 홍다구를 기용하여 遼左 지역을 지키라고 하였다.<sup>57)</sup>
- C-4 乃顔 무리 哈丹의 아들 老的이 평양(西京)을 노략질하고 장차 江都를 공격하려 하였는데 왕이 羅裕에게 명하여 방어하라고 하였다. 나유가 沿海를 따라 험한 곳을 넘어 賊과 평양에서 조우하여 싸워 哈刺·桑哥 두 賊將을 斬하고 賊을 무너뜨렸다.<sup>58)</sup>

C-1은 1291년 정월에 원 장수 伯帖木兒가 합단의 아들 老的과 압록강에서 우연히 벌어진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이에 세조가 諸王 乃蠻帶와 平章政事 薛閣干 등에게 고려로의 출병을 명한 내용이다. C-2는 원에 체류한 세자(忠宣王)가 합단에 대한 토벌을 위해 세조에게 援兵을 주청하였으며,

55) 『元史』 卷131 列傳18 伯帖木兒. “二十七年 哈丹復入高麗. 伯帖木兒奉命 偕徹里帖木兒進討 二十八年正月 至鴨綠江 與哈丹子老的戰 失利 伯帖木兒以聞 帝命乃麻歹薛徹干等征之 仍命伯帖木兒爲先鋒”

56)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正月 癸亥. “世子謁帝 請討哈丹 帝命 那蠻歹大王 將兵一萬討之”

57) 『元史』 卷154 列傳41 洪福原父大宣子俊奇. “叛王哈丹等竄入高麗 侵撓其國西京 距遼陽二千里皆騷動 中書省特起茶丘鎮遼左”

58) 『高麗史』 卷104 列傳17 羅裕. “乃顔黨哈丹子老的鈔掠平壤 將攻江都 王命裕禦之 裕沿海踰險 遇賊于平壤 斬哈刺桑哥二賊將 賊潰”

이에 세조가 제왕 乃蠻帶에게 토벌을 명령한 것이다. C-3은 합단이 고려의 西京을 침범하면서 원의 요양지역 일대까지 그 여파가 매우 컸기에, 원 조정은 특별히 홍다구로 하여금 遼左일대의 수비를 담당케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C-4는 나유전의 내용으로, 나유가 충렬왕의 명을 받은 후 노적의 합단군과 싸워 격파한 西京 전투를 5월에 있었던 연기현 전투 이전에 기록하고 있다.

C-1~4 자료들을 검토하였을 때 서북 방향을 침공하였던 합단군의 主將은 합단의 아들인 老的으로 판단된다. 노적의 부대가 압록강에서 원군과 싸워 이긴 후 곧바로 西京에 남하하였으며, 이후 開京-江都 등을 목표로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노적의 軍勢에 대해서는 사료에 상세히 나오지 않지만, C-1에서 노적이 압록강에서 원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는 것과 C-3에서 서경에 침입하여 원 본토에까지 그 여파가 컸었다는 내용 등으로 추정하였을 때 소규모 부대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노적의 서북 방향 침공은 충렬왕에게 상당한 위기 인식으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고려가 1290년 3월 원으로부터 동녕부를 돌려받은 이후 서북면에 대한 방비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12월에는 서북면도지휘사 鄭仁卿이 서경을 버리고 강도로 도망치면서 서북면 방비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sup>59)</sup>

자료 C-4의 서경 전투를 추정해본다면, 노적의 침공으로 위협을 받게 된 충렬왕은 이미 동북 방향에 주둔하고 있었던 나유의 고려군으로 하여금 막도록 명을 내렸다. 이들은 서북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企圖를 숨기기 위해 서해도의 沿海를 따라 이동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려군은 서경에 침입한 노적의 합단군을 맞아 싸워 이들의 장수 2명을 베는 등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 전투이후 노적의 침공 기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고려군이 서경에서 합단군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경 전투의 승리는 전쟁 국면을 전환시킨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으며, 고려의 중앙군이 스스로 위기국면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59)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12月 戊子. “鄭仁卿亦自西京逃來”



군사적 역량이 있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D-1 (1291년 2월 정해) 세자는 장군 오인영으로 하여금 황제에게 哈丹이 北界 여러 성들을 함락시켰다고 아뢰게 하였다.<sup>60)</sup>
- D-2 (1291년 3월 무오) 대장군 宋華를 보내어 개경의 궁궐을 지키게 하였는데, 우연히 哈丹賊 10여 기를 만나 그 가운데 3명을 참하고 1명을 사로잡았다. 利川 사람 신비가 哈丹의 침입과 함께 음모를 꾸몄고, 龍岡 사람 김철 또한 적에게 투항하여 향도로서 개경에 들어왔는데, 모두 거리에서 참하였다.<sup>61)</sup>
- D-3 (1291년 4월 병자) 곡주별장 강평기 등이 적으로부터 노획한 말과 안장 등의 물품을 바쳤다.<sup>62)</sup>
- D-4 (1291년) 庚寅(年) 합단적이 이웃 국경에서 사납게 일어나 장차 우리의 영토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賊勢가 매우 성하여 그 예봉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나라에서는 임시로 江華로 피난하려고 하면서, 공(元瓘)을 本京留守萬戶로 삼았다. 공이 이 때 나라 일로 인하여 자신의 몸을 잊었고 어려움에 임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는데 마침내는 성과와 궁궐, 가옥이 비록 賊에게 불타는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전과 같이 편안할 수 있었다.<sup>63)</sup>

D-1은 세자가 원 황제에게 합단이 북계를 함락시켰다는 내용의 보고를 나타내며, D-2·3은 합단군이 서해도 이남의 곡주와 개경에서 고려군과 接戰하였다는 내용이다. D-4는 이전 해에 개경 수비를 담당하였던 知都僉議司事 송분이 강도로 도망치고,<sup>64)</sup> 本京留守萬戶 元瓘이 개경을 지키고 있던

60)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2月 丁亥. “世子令將軍吳仁永 奏帝曰 哈丹陷北界諸城”

61)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3月 戊午. “遣大將軍宋華 守開京宮闕 華遇丹賊十餘騎 斬三級 擒一人 利川人申費 與哈丹謀人同謀 龍岡人金哲 亦投賊嚮導入京 並斬于市”

62)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4月 丙子. “谷州別將康平等 獻所獲賊馬鞍等物”

63) 『高麗墓誌銘集成』僉議贊成事元公墓誌銘. “庚寅 哈丹賊暴起於隣境 將入我疆 賊勢甚盛 其鋒不可當 故國家方卷入江華 以避之 以公爲本京留守萬戶 公於是時 國因忘軀 臨難不懼 盡忠竭力 遂使城關閤舍雖經賊火而 晏然如舊”

64)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6年 12月 戊子. “玠棄京城奔入江華”

중 개경 내의 성곽과 궁궐, 가옥 등이 賊에게 불태워졌다는 기록이다. 이들 사료에 나오는 합단군은 서경 전투에서 패배한 노적의 잔적으로서, 곡주를 비롯한 서해도 일대와 개경 등에 출몰하면서 고려군과 교전한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4월 平章政事 薛閣干의 元軍은 藍島 北郊에 도착하여 충렬왕의 영접을 받았으며,<sup>65)</sup> 뒤이어 劄王 乃蠻帶의 원군도 도착하였다.<sup>66)</sup> 이러한 원군의 증원은 고려가 결정적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 (2) 동북 방면의 전황과 지방군의 항전

한편 동북 방면의 전황을 살펴보면, 1291년 정월에 노적의 서북 방면 침공과 함께 합단의 본대도 교주도로 침공하였다. 이들이 철령에 이르게 되자, 고려의 중군만호 정수기는 지키지 못하고 도망쳤다.<sup>67)</sup> 철령은 길이 좁고 겨우 한 사람밖에 통과하지 못하는 요협지<sup>68)</sup>로 소규모 군사로도 방어 가능하였는데, 이를 버려둔 것이다. 정수기가 철령에서 도망침으로써 합단군은 막대한 군량을 획득하였고,<sup>69)</sup> 교주도로 침공하였다. 결국 이 일대를 지키고 있었던 우군만호 김흔 등도 역시 물러나게 되었으며,<sup>70)</sup> 합단군은 침공 방향을 원주로 향하게 되었다. 이무렵 원주에서는 防護別監卜奎가 지역방어를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파견되어 있었으며,<sup>71)</sup> 그 휘하에 원주의

65)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4月 辛巳. “王出迎元兵于藍島北郊 宴河西國王慶重郡王薛閣干閣梨帖木兒平章塔出右丞白帖木兒”

66)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4月 戊子. “王迎那蠻歹大王塔海元帥于狻猊宴慰”

67)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 17年 正月. “哈丹將至鐵嶺 防守萬戶鄭守琪望風遁還 囚巡馬所”

68)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 17年 正月. “鐵嶺道隘纔通一人”

69)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 17年 正月. “哈丹下馬 魚貫而登 時賊飢甚 及得守琪所棄資糧”

70)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 17年 正月. “遂踰嶺關入交州道 金忻等皆不守而走”

71) 防護別監은 대몽전쟁시 지방민의 입보와 항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파견되었던 무반의 관원이었다. 전투시 인근지역의 수령을 통할하면서 입보 및 항전의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때의 파견은 합단군의 침입에 대한 대책으로 실시되었다(윤용혁, 앞의 글, 1994, 87쪽).

州縣別抄<sup>72)</sup> 편성된 지방군이 雉岳城<sup>73)</sup>에 주둔하고 있었다.

여기서 합단군이 남경 일대로 진입하지 않고 원주로 진공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전에 요동에서의 근거지 상실로 군량이 극히 부족하였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합단군이 水達達·女眞 일대와 和州·登州 등을 노략질하였고, 철령에서 고려군이 버리고 간 군량을 획득하게 되어 당장의 굶주림과 병참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도 차후 장기전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을 것이다. 합단군이 공격목표로 설정한 원주는 고려의 漕倉 중의 하나인 興元倉<sup>74)</sup>이 위치했는데, 이곳은 중앙관리의 祿俸을 京倉에 운송하는 곳이기도 하였다.<sup>75)</sup> 따라서 합단군이 공격방향을 원주로 향했다는 것은 물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장차 고려본토에서의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면서 장기전에 필요한 병참물자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추정된다.<sup>76)</sup>

72) 방호별감 복규의 지휘하에서 합단군과 싸웠던 鄉貢進士 원충갑은 州縣別抄에 소속되어 있었다(『高麗史』 卷104 列傳17 元冲甲. “元冲甲原州人 … 以鄉貢進士 隸本州別抄”). 州縣別抄(지방별초)는 무신집권 당시에는 기존의 지방군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從軍 가능한 자를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징발하여 조직하였지만 원 간섭기에 이르면 원충갑과 같은 양반층과 일반 농민층으로 구성된 상비군 조직으로 전환·운용하였다(權寧國, 『高麗後期軍事制度 研究』, 서울大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5, 45쪽).

73) 원주 치악성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雉岳山은 원주 고을의 鎮山으로서 3개의 산성이 있다. 3개의 산성은 鶴原山城과 金臺山城과 海美山城이라 불린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합단군과 고려군이 싸웠던 곳으로 치악산의 鶴原城으로 기록되어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46 原州牧 古跡 領原城條. “在雉岳山南背 石築周三千七百四十七尺 內有一井五泉… 諺傳 此城梁吉所據 後元冲甲據此破丹兵”). 따라서 치악성은 영원산성으로 파악된다.

74)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흥원창의 위치가 蟾江의 북쪽 언덕에 있으며 원주의 남쪽 30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46 原州牧 倉庫 興元倉條. “在蟾江北岸距 州南三十里”). 흥원창의 정확한 위치는 한강 북안에 있으며 원주시 부론면 흥호2리에 위치하였다는 견해도 있다(崔壹聖, 興元倉 고찰, 『詳明史學』 3·4, 1995, 534~535쪽).

75) 흥원창의 물자들은 1290년 11월 중앙으로부터의 입보 명령에 의해서 이듬해 정월 이전까지 원주 雉岳城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주 전투간 합단군의 소규모 부대가 치악성 부근에서 祿轉米를 강탈했다는 것과 興元倉判官 曹愼이 치악성 전투에 참여하였다는 기록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76) 哈丹軍이 양근에서 남경 일대로 직접 진입하지 않고 원주방면으로 방향을 돌린 것에 대해서 윤용혁은 한강의 장애로 보았다(윤용혁, 앞의 글, 1994, 86쪽). 이인재는 중부내륙 지방을 공격하기 위한 지리적 요충지외에도,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지 않으면 군사를 유지할 수 없는 합단군의 입장에서 흥원창에 모아져 있는 곡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았다(이인재, 앞의 글, 2000, 116쪽).

드디어 정월 중순에 합단군이 원주에 도착하였고, 예하 50騎가 치악성 부근에서 牛馬를 약탈하였다.<sup>77)</sup> 이들은 본대가 치악성을 공략하기에 앞서 지형을 살피기 위한 정찰부대였을 것이다. 이튿날에는 원충감의 지방군이 녹전미를 강탈하던 합단군 장수 都刺閹 등의 400명의 군사를 격퇴시켰지만,<sup>78)</sup> 그 전과는 극히 미약하였다. 이후 합단군은 인근의 陽根城을 함락시키고,<sup>79)</sup> 치악성에 대한 회유책과 공성전 준비를 병행하였다.<sup>80)</sup> 이는 양근성을 비롯한 여러 성들을 우선 함락하여 원주를 고립시키면서, 공성전을 감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sup>81)</sup>

다음날 합단군은 양근성에서 잡은 여인 2명을 내세워 재차 회유하였으나 鄉貢進士 원충감이 이들을 배자, 곧바로 양군은 전투에 들어갔다.<sup>82)</sup>

E-1 (1291년 정월 경신) 화살이 빗발같이 쏟아져서 성이 거의 함락직전에 처해있는데, 興元倉判官 曹愼이 성에서 나와 싸우고, 원충감이 東峯에 갑자기 올라가 적 1명을 베니, 賊이 점차 혼란해졌다. 別將 康伯松이 노비 道尼 등 30여 명과 함께 이를 돕고, 州吏 元玄, 傅行蘭, 元鍾秀와 國學 養正齋의 유생 安守貞 등 1백여 명과 같이 西峯에서 내려가 함세하여 공격하였다. 賊 前行이 조금 물러서면서 뒤의 군사가 놀라고 소란스러워지자, 저희들끼리 서로 짓밟고 억누르니 州兵이 습격하여 소리가 산악에

77) 『高麗史節要』卷21 忠烈王 17年 正月 甲寅. “哈丹屯原州 有五十騎 到雉岳城下 剽掠牛馬 原州別抄鄉貢進士元冲甲 率步卒六人逐之 奪賊馬八匹而還”

78) 『高麗史節要』卷21 忠烈王 17年 正月 戊午. “賊都刺閹 禿於乃孛蘭等 領兵四百 又至城下 得本州祿轉米 甚喜 冲甲與敢死者仲山等七人 出覘之 仲山先入賊中 斬一人 因追至荊門外”

79)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正月 己未. “哈丹踰鐵嶺 闖入交州道 攻陷楊根城”

80) 『高麗史節要』卷21 忠烈王 17年 正月 己未. “賊復來多張旗鼓 先使一人 持書來誘 冲甲出 斬持書者 繫其書於頭 擲之 賊皆退 益修攻城之具 城中震懼”

81) 몽골군은 공성전의 경우, 먼저 주변에 위치한 小城들을 격파하여 大城을 고립시키고, 이후 小城에서 사로잡은 백성들을 인간방패나 노역자로 사용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하였다 (박원길, 『몽골비사 195절의 표현방식을 통해 본 13~14세기 몽골군의 전술』, 『몽골학』 14, 2003, 303쪽). 합단군의 원주 치악성에 대한 공성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82) 『高麗史節要』卷21 忠烈王 17年 正月 庚申. “賊遣所俘楊根城婦女二人來誘城下 冲甲又斬之 賊鼓譟而進 百計攻之”

떨쳤다. 都刺關 등 68명을 베고, 쏘아 죽인 자가 반이나 되었다.<sup>83)</sup>

E-2 (1291년 4월 병자) 충주산성별감이 적을 격파하고 적의 머리 40급을 바쳤다.<sup>84)</sup>

사료 E-1은 치악성의 전투 내용을 나타낸 것이며, 원주군은 합단군의 화살 등 공세로 인해 守成의 한계에 이르게 되자, 興元倉判官 曹愼의 군사가 出城하였고, 원충감과 향리 元玄 등도 각각 동쪽과 서쪽에서 합세하는 등 세 방향에서 합단군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원주군의 반격으로 합단군 선두 부대는 전진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되면서, 뒤따르는 후속 부대와 뒤섞여 전 부대가 우왕좌왕하는 혼란을 야기하였다. 결국 원주군은 공방전에서 적 지않은 전과를 올렸으며, 이후 10회에 걸친 전투에서 합단군을 크게 격파하면서 승리하게 되었다.<sup>85)</sup>

E-2는 치악성 전투 이후 4월에 충주산성별감이 합단을 격파하고 그 전과를 조정에 보고한 내용인데 원주와 같이 충주에도 방호별감이 중앙의 명으로 파견하여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료가 간략하여 전투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원주에서 격퇴당한 합단군이 남하를 재개하여 충주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주의 경우와 같이 충주산성별감의 지휘로 해당지역의 관리와 지방군을 비롯한 지방민들이 산성에 입보하였고, 이후 합단군의 침공을 맞아 격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합단군은 충주에서의 패전으로 경상도 진입이 봉쇄되면서, 진로를 충청도로 향하게 되었다.<sup>86)</sup> 이러한 원주 치악성과 충주산성 전투의 승리는 중앙에서 파견된 방호별감의 지휘하에 해당 지방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항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는 과거 40여 년 간 대몽전쟁의 경험을 통한 거점방어체계가 합단군과의 전쟁에서도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83) 『高麗史節要』卷21 忠烈王 17年 正月 庚申. “矢下如雨 城幾陷 興元倉判官曹愼出城與戰 冲甲突上東峯 斬賊一級 賊稍亂 別將康伯松與奴道尼等三十餘人助之 州史元玄傳行蘭元鍾秀與國學養正齋生安守貞等百餘人 下自西峯合擊 賊前行少北 後者驚擾 自相躡躑 州兵合擊 聲振山岳 斬都刺關等六十八人 射殺者幾半”

84)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4月 丙子. “忠州山城別監破賊 獻馘四十級”

85) 『高麗史節要』卷21 忠烈王 17年 正月 庚申. “州兵合擊 聲振山岳 前後十戰 大敗之”

86) 윤용혁, 앞의 글, 1994, 93쪽.

#### 4. 여원연합군의 공세와 합단군의 패퇴

전쟁 초기 합단군은 동·서북 양 방향을 침공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고려 중앙군의 적극적인 반격과 지방민에 의한 거점 중심의 항전으로 패하면서 그 戰力이 약화되었다. 그 결과 고려군은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으며, 이후 원군과의 연합군 편성으로 군사력이 우세해졌다. 1291년 4월 고려군은 중익만호 인후·좌익만호 한희유·우익만호 김흔 등이 지휘하는 3翼으로 부대를 재편성하고, 합단군을 최종적으로 섬멸하기 위해 남쪽으로 출정하였다.<sup>87)</sup> 이어 평장정사 薛闇干이 지휘하는 元軍도 남진을 재개하여 金嶺驛에 머물렀다.<sup>88)</sup> 한편 원주에 이어 충주에서도 패배한 합단군은 燕岐縣으로 이동하였다. 5월 麗元聯合軍은 木州에 주둔하였는데, 합단군이 연기현에 주둔 중이라는 나졸 고문려의 보고에 따라 木奴赤 등 28명을 그와 함께 보냈다.<sup>89)</sup> 여원연합군은 야간을 이용해 이동하였고, 다음날 새벽에 연합군은 연기현 正左山 아래에 주둔하고 있었던 합단군을 포위하여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sup>90)</sup> 당시 전투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F-1 (1291년 5월 정유) 賊이 크게 놀라 산으로 올라가서 험한 곳을 이용하여 싸웠다. 우리 三軍은 보졸이 앞에 있고 기병이 뒤를 쫓았는데, 적이 앞뒤로 견제를 받아 모두 말을 버리고 숲 사이에 숨어서 우리 선봉 중 두 사람을 맞췄는데, 우리 군이 의아하고 두려워 감히 나가지 못했다. 金忻이 꾸짖고 또 명하기를 감히 물러서는 자는 베겠다고 하였다. 이에 보졸 500명이 앞을 다투어 올라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는데, 병졸 이석·전득현 등이 돌진하여 적의 선봉장사 2명을 베면서, 승세를 이용하여 크게

87)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4月 甲申. “命中翼萬戶印侯左翼萬戶韓希愈右翼萬戶金忻出師”

88)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4月 壬辰. “薛闇干大軍 次金嶺驛”

89) 『高麗史』卷104 列傳17 金方慶附 金忻傳. “邏卒高文呂報 賊屯燕岐縣 遣木奴赤等二十八人與文呂往 覘之夜半 諸軍發木州 黎明至燕岐”

90) 『高麗史節要』卷21 忠烈王 17年 5月 丁酉. “賊屯燕岐縣 薛闇干大軍 及我三軍 夜半發木州 黎明至燕岐正左山下薄賊陣 出其不意圍之”

합성을 지르며 대군이 합세하여 공격하여 적은 세가 궁하여 무너져 도망쳤다. 추격하여 공주하에 이르렀는데, 얻어진 시체가 30여 리에 걸쳐 있었으며, 익사한 자도 매우 많았다. 적의 정예기병 1천여 명은 강을 건너 도망하였다. 노획한 부녀자·의복·鞍馬·寶器 등이 셀 수 없었다.<sup>91)</sup>

F-2 (1291년 5월 계해) (薛)閻干의 군령이 엄격하였으므로 사졸들이 두렵고 무서워하여 지나는 곳에서 추호도 犯하지 않았다. 賊이 燕岐에 주둔해 있다는 것을 듣고, 밤을 낮 삼아 이동하였고, 불의에 나가 2번 싸워 격파하니 모두 그의 힘이었다.<sup>92)</sup>

사료 F-1은 우익만호 김흔의 독전에 힘입은 여원연합군이 정좌산에서 합단군을 크게 격파하여 승리한 1차 전투의 내용이다. F-2는 고려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철수하는 薛閻干의 元軍과 이들의 연기현 전투 행적에 대해 평한 것이다.

F-1·2에서 1차 전투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여원연합군의 승리 요인은 신속한 강행군과 허를 찌른 기습 공격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F-2에서 薛閻干의 원군이 밤을 낮 삼아 이동하면서 불의의 공격을 하였다는 기록에서 짐작된다. 한편 여원연합군의 기습에 대해 합단군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F-1에서 합단군이 大驚하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군의 전술을 살펴보면, 이들은 軍營을 설치할 때 반드시 순찰병을 비롯한 경계 수단을 곳곳에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sup>93)</sup> 물론 합단군은 기습에 대비하기 위한 경계 병력을 운용하였겠지만 원주·충주 전투에서의 거듭된 패배로 인한 피로로 인해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91)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 17年 5月 丁酉. “賊大驚 欲登山負險而戰 我三軍步卒在前 騎兵逐後 賊腹背受制 皆棄馬 隱於林木間 射我前鋒中二人 我軍疑懼不敢進 金忻叱且令曰 敢後者斬 於是步卒五百 爭先登殊死戰 有卒李碩田得賢等突前 斬賊先鋒壯士二人 乘勝大呼 大軍合擊 賊勢窮奔潰 賊勢窮奔潰 追至公州河 伏屍三十餘里溺死者甚多 賊精騎千餘 渡河而遁 獲其婦女衣服鞍馬寶器 不可勝計”

92)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5月 丁酉. “閻干軍令嚴肅 士卒震懾 所過秋毫不犯 聞賊屯燕岐 併日而行 出其不意 二戰而破 皆其力也”

93) 박원길, 앞의 글, 2003, 297~301쪽.

1차 전투 이후 여원연합군은 회군하여 연기현 북쪽 50리 지점에 주둔하였다.<sup>94)</sup> 이 사이 합단군은 군사를 정돈하였고, 여원연합군과 2차 전투를 벌였다.<sup>95)</sup> 이때 여원연합군은 諸王 乃蠻帶의 증원으로<sup>96)</sup> 군사력이 더욱 우세하였으며, 합단군을 재차 격파하였다. 전투 막바지에 원군 장수 伯帖木兒가 합단을 끈질기게 추격하였으나 사로잡지 못했다.<sup>97)</sup> 결국 합단과 노적 부자는 더 이상의 침공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도주하였다.<sup>98)</sup> 그 무렵 별도의 합단군 후속부대가 3천기 규모로 철령을 넘어 남하하고 있었고<sup>99)</sup>, 그 중 일부 부대가 古東州까지 내려왔다가 본대가 연기현에서 대패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철수하였다.<sup>100)</sup>

연기현 전투는 약 6개월 동안에 진행되었던 합단군과의 전쟁을 종식시킨 결정적 전투로 평가할 수 있다.<sup>101)</sup> 왜냐하면 이 승리로 인해 전쟁이 더 이상 장기화가 되지 않았으며, 戰場이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연기현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薛闡干은 충렬왕의 연회 초청을 거절하고 급히 귀국하였다.<sup>102)</sup> 이는 북쪽 방향으로 도주한 합단군 잔적에 대비하여 관할 지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날에는 諸王 乃蠻帶도 귀국함<sup>103)</sup>에 따라 원군은 완전히 고려에서 철수하였다. 6월 고려 조정은

94) 『高麗史節要』卷21 忠烈王 17年 5月 丁酉. “日暮回軍 屯于燕岐之北五十許里”

95)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5月 甲辰. “哈丹整軍 復來對陣”

96) 『高麗史節要』卷21 忠烈王 17年 5月 甲辰. “那蠻歹大王以不及大戰憤恨 欲與之戰”

97) 『元史』卷131 列傳18 伯帖木兒. “踰數日 乃麻歹以兵至 合攻哈丹 又敗之 伯帖木兒將百騎 追至一大河 虜其妻孥 追奔逐北 哈丹尚有八騎 伯帖木兒止餘三騎再戰 兩騎士皆重傷不能進 伯帖木兒單騎追之 至一大山 日暮 遂失哈丹所在”

98)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5月 甲辰. “哈丹老的父子 率二千餘騎 潰圍遁去”

99)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5月 己亥. “交州山城別監報 哈丹賊後至者三千騎 遇鐵嶺 屯于交州”

100)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5月 庚戌. “諜者來報 賊一千至古東州 聞官軍破賊於燕岐 還過鐵嶺而去”

101) 윤용혁, 앞의 글, 1994, 101쪽.

102)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5月 乙丑. “薛闡干還 王欲邀宴 薛闡干曰 受命事畢 不可留 遂登途”

103)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5月 丙寅. “那蠻歹等皆還 是月 蝗”



김흔을 竹田에, 한희유를 충청도에, 그리고 나유를 교주도에 파견하여 합단의 잔적을 잡도록 명하였다.<sup>104)</sup> 비록 여원연합군이 연기현 전투에서 합단군을 격퇴시켰으나 도처에 남아있는 잔적들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한희유는 합단군 잔적 580명의 투항을 받았다.<sup>105)</sup> 또한 나유의 고려군은 서경 부근에서 노적의 합단군과 싸워 또다시 격퇴하였는데,<sup>106)</sup> 정월과 6월에 노적을 상대로 2차례나 싸워 승리한 나유는 합단군과의 전쟁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나타냈다.<sup>107)</sup>

합단군이 여원연합군에 의해 고려에서 패주하면서, 전쟁은 일단락을 맺었다. 이 전쟁으로 고려는 동·서북면이 적에게 유린되었고, 三南의 일부 지역도 침입당하는 등 적지않은 피해를 당했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구휼조치를 위해 각각 충청도와 서해도에 대한 救急別監<sup>108)</sup>을 경상·전라·충청도의 蘇復別監을 파견하였다.<sup>109)</sup> 한편으로는 합단군의 재침에 대비하여 각 지방에 도지휘사를 파견하는 등<sup>110)</sup> 군사적 조치도 취하였다.

1292년(충렬왕 18)에 합단군은 다시 고려를 침공하려 시도하였다가 塔出의 원 토벌군과 싸우게 되었다. 그 결과 노적이 원 장수 博羅歡에 의해 전사하고 합단 자신도 사망하게 되었다.<sup>111)</sup> 이로써, 합단군과의 전쟁은 마침

104)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6月 丁卯. “遣金忻于竹田 韓希愈于忠清 羅裕于交州道 追捕哈丹餘賊”

105)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6月 辛未. “韓希愈報 丹賊五百八十人降”

106)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6月 辛未. “老的引軍趨平壤 羅裕禦之 郎將李茂奮擊 斬馘無算”

107) 조선초 集賢殿直提 梁誠之가 前代의 임금과 재상을 배향할 것을 주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 중에는 합단과의 전쟁에 공을 세웠던 한희유와 나유 등이 포함되었다(『世祖實錄』卷3 2年 3月 丁酉. “集賢殿直提學梁誠之上疏曰 … 近日所定 前朝配享十六臣 及韓希愈羅裕”). 이는 합단군과의 전쟁에서 나유의 공헌이 컸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108)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7月 戊戌. “分遣救急別監于忠清西海道”

109)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8月 辛卯. “遣近侍郎將金龍劔爲慶尙全羅忠清道蘇復別監 州郡被賊之餘 百姓困耗 怨讟交騰 將欲按問官吏善惡 以行賞罰”

110)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7月 丁巳. “以安戩爲西北面都指揮使”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10月 壬申. “分遣都指揮使 宋玠於慶尙道 韓希愈於東北面 金之淑於西北面”

111) 『元史』卷121 列傳8 博羅歡 “哈丹死 斬其子老的於陣”

『新元史』卷105 列傳7 哈丹 “二十九年 哈丹又涉海南 襲高麗 塔出與博羅歡追討之 斬其子老的於陣 哈丹赴水死”

내 종결되었다.

이상으로 합단군의 침공 과정과 고려군의 대응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비록 고려가 합단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원군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하지만 전쟁 초기 고려 관군의 적극적인 반격과 지방민에 의한 거점 중심의 항전도 전쟁 승리의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대외전쟁에 대한 고려의 국가적 대응 의지가 확고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5. 맺 음 말

이상에서 필자는 13세기 말 합단군의 고려 침공 당시 침공경로를 재복원하면서 지방 항쟁의 시각에서 주목하였던 전쟁의 전체적인 양상과 그 의미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본문에서 다루었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287년 쿠빌라이에 대항하여 乃顔·哈丹을 중심으로 일어난 동방왕가의 반란은 원 제국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고려에도 그 여파가 파급되었다. 1290년 합단군의 고려 침공이 임박해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고려는 중앙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비책을 시행하는 한편, 원과의 군사 연합을 공고히 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있었다. 1291년 정월에 원군에 항진하였던 합단군은 철령-원주-충주와 압록강-서경-개경 등 동·서북 양방면으로 침공하였다. 먼저 서북 방면의 전황을 살펴보면, 노적의 합단군이 압록강에서 원군을 상대로 이기고 서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고려는 수도인 개경과 강도가 위협받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나유의 고려군이 서경에서 노적의 합단군과 싸워 크게 승리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막아냈다. 동북 방면의 전황에서는 원주·충주 지방민이 방호별감의 지휘 하에 거점 중심의 항전을 펼침으로써 합단의 본대를 격퇴시켰다. 전쟁초기 관군의 적극

적인 대응과 지방민의 항전으로 고려는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그 해 4월 원군의 지원으로 편성된 여원연합군은 연기현에서 합단군을 최종적으로 격퇴하면서, 전쟁을 종식시켰다.

이상의 논의결과, 합단군의 고려 침공 양상과 전쟁 승리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는 합단군은 철령-원주-충주 등 동북 방면뿐만 아니라 압록강-서경-개경 등 서북 방면에서도 침공하였다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전체적인 전쟁 양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는 전쟁 승리의 요인으로 지방민의 적극적인 항전과 원군의 지원 외에도 고려 조정과 관군의 활약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전쟁이전 중앙 차원에서의 꾸준한 대비와 서경 전투에서 중앙군의 동향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대외전쟁에 대한 당시 고려의 국가적 대응 의지가 확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은 13세기말 충렬왕대에 발발했던 합단군의 침공을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전쟁사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전쟁의 주요한 주체인 고려 조정과 관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대몽전쟁 이후 당시 고려의 군사력 운용 과정에 대해 서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차후 관련 주제를 부단히 연구하는 가운데 극복하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 2010. 9. 30, 심사수정일 : 2010. 10. 15, 게재확정일 : 2010. 10. 29)

주제어 : 충렬왕, 나유, 합단, 노적, 쿠빌라이(忽必烈), 서경, 원주, 연기현, 중앙군, 거점방어

<ABSTRACT>

## *Goryeo's* Response to the Invasion by the *Qadan* Forces in the End of 13th Century

Kim, Jin-su

In Mongolia, which appeared as a great global empire in the 13th century, a fierce political strife took place over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after the death (1259) of the 4th Emperor, *Mungke*. Kublai Khan who ascended to the imperial throne in 1260 (*Wonjong* 1) changed the country name to *Yuan* as he griped with the civil war, and established the centralizing system having *Yuan* Dynasty in its center. However, as some feudal lords uprose against to *Kublai Khan* of *Yuan* Dynasty, *Yuan* Dynasty came under another civil war. The representative powers were the House of West in the Central Asia, the House of East in North Eastern *Manchuria*, etc. and they raised rebellions for the purpose of the overthrow of *Yuan* Dynasty, respectively in 1269 and 1287.

Especially, the aftermath of the rebellion by the House of East was carried into *Goryeo*, a neighbor nation as well as the *Yuan* Dynasty. As *Goryeo* invasion by the *Qadan* Forces, a member for the House of East was imminent, *Goryeo* was actively implementing the preventative measures as a matter of Centralism and continuously preparing such as strengthening the military joint with *Yuan* Dynasty in order to provide for the future. The *Qadan* Forces, who resisted to *Yuan* in the first month of 1291, invaded them from the both directions, north east and north west such as *Cheolryeong-Wonju-Chungju* and the *Yalu River-Seokyeong-Gaekyeong*.

If looking at the military situation of north west area first, *Qadan* Forces of *Naodi* won the war against to the *Yuan* Forces at the *Yalu* River and reached

*Seokyeong* Area. Due to the Yis situation, *Goreyo* faced a military emergency that its capital *Gaekyeong* and *Gangdo* were threatened. However, as the *Goreyo* Forces led by *Nayoo* largely succeeded in defeating the *Qadan* Forces in *Seokyeong*, they managed to overcome the crisis. In the war situation of the north east area, local crowds of *Wonju* and *Chungju* fought back at the battles in the military base under the command of *Banghobyolgam*, a military official in *Goreyo* and repulsed the main forces of *Qadan*. *Goreyo* could seize the winning chance in the war thanks to the active responses of the Government Forces and the fight backs of the local crowds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war.

The *Goreyo-Yuan* Allied Forces formed by *Yuan's* military aid in April of the same year ended the war by finally repulsing the *Qadan* Forces in *Yeongihyeon*.

*Goreyo's* triumph in this war was conclusively possible by *Yuan's* military aids. However, the active responses of the *Goreyo* Government Forces and the fight backs of the local crowds centered in the military bases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war are also evaluated as the key figures of winning the war. This suggests that *Goreyo's* wills for the national level of responses to the foreign wars was firm.

Key Words : King *Chungryeol*, *La-yu*, *Qadan*, *Naodi*, *Kublai Khan*, *Pyeongyang*,  
*Wonju*, *Yeongihyeon*, Government Forces, Military Bases

